

2017년 1월 30일 오늘의 아침편지

엄마의 사랑, 엄마의 형벌
母の愛、母の刑罰

책을 백 권 읽으라는 벌은
本を100冊読めという罰は

내게는 전혀 벌이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私には全然罰ではないが、誰かには

거의 형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백 킬로미터를
ほとんど刑罰になることあるでしょう。100kmを

행군하라는 것이 내게는 가혹한 형벌이지만
行軍しろということは、私にが過酷な刑罰だが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산책이 될 수도 있을
誰かには楽しい散策になることもある

것입니다. 우리 둘째 아이에게는 나가서
でしょう。我々の二番目の子供には、外に出て

사람들하고 즐겁게 사귀며 놀라는 말이
人々と、楽しく付き合いながら遊ぶことが

엄마가 내리는 벌이지만 우리 딸아이에게는
母が下す罰だが、我々の娘には

신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도
楽しいことになることを気づくことも

부끄럽지만 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恥ずかしいが、実は母になってないです。

- 공지영의 《빗방울처럼 나는 혼자였다》 중에서 -
- コン・ジョンの〈雨粒のように私は一人だった〉より -

* 같은 사안도 사람에 따라
* 同じ事案も人によって

정반대의 감정을 불러 일으킵니다.
正反対の感情を呼び、引き起こします

엄마는 사랑으로 한 일이 아이는 형벌로,
母は愛でしたことが、子供には刑罰に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오히려 아픈 상처로
正反対に対する配慮がむしろ、痛い傷に

둔갑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사람 사이의
化けることも、一度や二度ではありません。人の中の

성숙된 관계는 사랑을 사랑으로, 배려를 배려로
成熟した関係は愛を愛で、配慮を配慮で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素直に受け入れることから始まります

엄마의 사랑은 형벌이 아니라
母の愛は刑罰ではなく

사랑일 뿐입니다.
愛であるだけです

둘째
[수사][관형사] 二番目; 二つ目.
형벌 (刑罰)
[명사] 刑罰.
둔갑 (遁甲)
[명사] 遁甲; 忍術; 化けること; 遁術.
비일비재 (非一非再)
[명사]
一度や二度でないこと.
たくさんあること; 数多くあること.
순순히
[부사] すなおに; 神妙に; おとなしく; 従順に.

2017년 1월 31일 오늘의 아침편지

천륜(天倫)
天倫

그렇다면 문제는
そうなら問題は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適当な距離を維持することです

밀착한 관계도, 소원한 관계도, 바람직한 것은
密着した関係も、希望した関係も望ましいことは

아니니까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대가족
ないですから。世の中が変わったのに、依然として大家族

동거를 주장하는 것도 조심해야 할 일이고,
同居を主張することも用心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で

그렇다고 다 자란 새끼니 이제는
そうかといって、成長した子供だから、これから

나 몰라라 하듯 팽개칠 수도
知らないふりをするように、投げ出すことも

없는 일입니다.
できないことです。

- 정진홍의 《괜찮으면 웃어주세요》 중에서 -
- チョン・ジホンの〈問題ないなら笑ってください〉より -

* 가족 관계.
* 家族関係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とても難しい問題です

세상이 바뀌었는데 옛날 방식을 고집할 수는
世の中が変わったのに、昔の方式を固執でき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거리도 예전과 같지
ません。両親、子供ほとんど距離も以前と同じ

않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ではありません。しかし、いくら世の中が変わっても

바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천륜입니다.
変わ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があります。天倫です

부모 자식 간의 '거리'는 바뀔 수 있어도
両親、子供間の'距離'は変わることができても

하늘이 맺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神が結んだ、両親子供の間の'関係'は

변할 수 없습니다.
変わりません。

바람직하다

[형용사] そうあるのが当然だ; (そう)あるべきだ; 望ましい; 好まし...

여전히

[부사] 相変わらず; 依然として; 今もなお.

대가족 (大家族)

[명사] 大家族.

동거 (同居)

[명사] 同居; 同棲.

주장 (主張)

[명사] 主張.

[타동사]

주宰.

[법률] 陳述.

2017년 2월 1일 보낸 편지입니다.

고리와 고리
輪と輪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私が意味あることをすれば

그걸 보고 주변 사람이 동화되어
それを見て周りの人が同化され

자신도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합니다.
自分も意味あることにともに参加します

그렇게 고리와 고리로 단단하게 결속되어
そのような輪と輪で固くつなが

나갑니다. 강물에 돌을 던져보십시오.
ります。川に石を投げてみてください

그 파동이 결국은 둔덕에까지
その波紋が結局は、丘まで

가닿습니다.
行き着きます

- 홍석현의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중에서 -
- ホン・ソッキョンの<我々がいて、私があります>より -

* 파동이 파동을 낳고
* 波が波を生み

공명이 공명으로 연결됩니다.
共鳴が共鳴につながります

누가 시작하느냐. 누가 먼저 강물에
誰が始めるのか。誰がまず川に

돌을 던지느냐가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石を投げるかが問題です。一人の

의미 있는 시작이 파동과 공명을 불러일으켜
意味ある始まりが、波と共鳴を呼び起こし

고리와 고리로 이어질 때, 세상을 바꾸는
輪と輪でつながるとき、世の中が変わる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強力な力になることができます。

고리1
[명사]
輪; 環; 輪状のもの.
문고리의 준말
동참 (同參)

[명사] 共に参加すること.

단단하다

[형용사]

堅[固·硬] (かた)い.

(굳다) 柔らかくない; 堅固だ.

(속이 차서) 中味が充実している; しっかりしている.

결속 (結束)

[명사] 結束.

둔덕

[명사] 丘; 塚; 盛り上がった土.

공명 (共鳴)

[명사] 共鳴.

2017년 2월 2일 보낸 편지입니다.

살아있는 느낌
生きている感じ

'완전한 허용'의 상태에 있을 때
'完全な許容'の状態にあるとき

가장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一番肯定的な変化が起こることができる

그게 어떤 모습이든 그저 자기 자신이 되라.
それがどんな姿でも、ただ自分自身になりなさい

살아있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이라면
生きている感じがするなら

무엇이든 받아들여라.
何でも受け入れなさい

- 아니타 무르자니의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중에서 -
- アニータ・ムアジャニの〈そしてすべてのことが変わった〉より -

* '완전한 허용'은
* '完全な許容'は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すべてのことを受け入れるという意味です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털끝 하나까지도
'私が生きている'ということを、毛の先1つまでも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完全に感じて受け入れるとき、我々は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さらに良く生きることができる。

털끝
[명사]
毛の先.
些細なもの; 毛頭; 毫末.

2017년 2월 3일 보낸 편지입니다.

천재와 '나무 타기'
天才と'木登り'

모든 사람은 천재다.
全ての人材は天才だ

하지만 물고기들을 나무 타기 실력으로
しかし、魚を木登り実力で

평가한다면, 물고기는 평생 자신이
評価すれば、魚は一生自分が

형편없다고 믿으며 살아갈 것이다.
つまらないと信じて生きていこう

(알버트 아인슈타인)
(アルバート・アインシュタイン)

- 자코모 마차리올의 《아이큐 50 내동생, 조반니》중에서 -
- ジャコモ・マツチャリオールの<IQ50の私の弟、チョバーニ>より -

* '나무 타기'는
* '木登り'는

물고기의 영역이 아닙니다.
魚の領域ではありません

다람쥐나 원숭이의 무대입니다.
リスや猿の舞台です

자기의 재능. 그 재능에 맞는 무대를 만나면
自分の才能。その才能にあう舞台に出会えば

사람은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人は誰でも天才になることができます

떨떨 날 수 있습니다.
びよんと飛ぶことができます

형편없다
[형용사]
(결과가) むちゃくちゃだ; 形無しだ; ひどい.
(취할 바가 없다) 取るに足りない; つまらない.

20170204.txt

2017년 2월 4일 보낸 편지입니다. 출력하기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김민석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キム・ミンソク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첫 친구에게
初めての友達へ

네가 늘
君がずっと

내 곁에 있음을
私のそばにいることを

잠시라도 잊고 있으면
少しでも忘れていれば

너는 서운하지? 친구야
君は残念だろう? 友人よ

기쁠 때보다
喜ぶときより

슬플 때
悲しい時

건강할 때보다
健康な時より

아플 때
辛い時

네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게
君の考えが、さらにたくさん出るのは

나는 좀 미안하다, 친구야
私はちょっと申し訳ない。友人よ

아무런 꾸밈없이
何の飾り気もなく

있는 그대로의
あるがままの

내 모습을 보여도
私の姿を見せても

부끄럽지 않아서 좋은 친구야
恥ずかしくなく、良い友人よ

네 앞에서 나는
君の前で私は

언제 철이 들지 모르지만
いつまでもなるかわからないが

오늘도 너를 제일 사랑한다
今日も君を一番愛している

네가 나에게 준 사랑으로
君が私にくれた愛で

나도 다시 넉넉한 기쁨으로
私ももう一度、豊かな喜びで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한다
他の人を愛し始める

- 이해인의 《필 때도 질 때도 동백꽃처럼》 중에서 -
- イ・ヘインの〈咲く時も散る時も椿のように〉より -

* 우연히 손에 잡힌 책에 쓰인
* 偶然に手に取った本に書かれた

시 한 구절에 뜨거움이 와락 밀려옵니다.
詩1節に熱がふいに押し寄せてきます

감사한 미안함, 포근한 그리움, 더없는 소중함과
感謝な申し訳なさ、柔らかい懐かしさ、またとない大切さ

더없는 감사함을 느껴봅니다.
またとない感謝を感じます

세상에서 만난 첫 친구.
世の中で会った最初の友人

세상에서 사귀 첫 친구.
世の中で付き合った最初の友人

세상에서 가장 큰 친구.
世の中で一番大きい友人

엄마, 사랑합니다.
ママ愛してます。

서운하다
[형용사] 物足りない; 名残惜しい; 残念だ; なんとなく寂(さ...

철이 들다 오픈사전오픈사전 도움말

物心がつく
(精神的に) 大人になる、まともになる

넉넉하다

[형용사]

(충분) 十分[充分]だ.

(살림이) (暮らしが) 豊かだ; 裕福だ; 事欠かない.

[부사] 急に立ち向かったり引っ張るさま: 不意に; にわか; ...

밀려오다

[자동사] (押し) 寄せる; 寄る.

포근하다

[형용사]

柔らかい; ふくよかだ; ふんわりしている.
(冬の気候が)風もなく暖かい.
(雰囲気などが)和やかだ.

그리움

[명사] 恋しさ; 懐かしさ.

더없다

[형용사] またとない; こよなし[아어(雅語)].

소중하다 (所重—)

[형용사] きわめて大切[貴重・大事・重要]だ; 貴(...)